

## \*\*리처드 마이어 주택과 마리오 보타 주택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es of Richard Meier and Mario Botta

김용립\* / Kim, Yong-Rhi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ouses of Richard Meier and those of Mario Botta to identify the features of their houses. To identify the features of their houses through comparison, it was most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their masters on them. Based on the lessons they learned from their masters, their hou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both their houses illustrated the principle and language of Le Corbusier. They extended the principle and language of Le Corbusier with their own thoughts and ideas and applied those to their house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houses arose from the influence of Louis Kahn and Carlo Scarpa on Botta and the influence of Mies van der Roeh on Meier. Botta who was taught by Kahn and Scarpa was able to develop his expressive and heavy style of brick house, while Meier who was influenced from Mies was distinguished for his cold, transparent, sleek and contemporary style of house. Third, they both showed outstanding abilities to integrate the principles and languages of their masters in their own creative ways, when developing their own styles of houses. While Volume of Corbusier, skills and languages of Kahn and Scarpa were put together in Botta's house, the Corbusier's feature of sectional variety and the Mies' feature of sleek and transparency were overlapped in Meier's house. Fourth, while new expression shown in Botta's house was achiev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languages of Kahn and Scarpa, new expression shown in Meier's house was created mostly in the process of taking and applying materials and languages from contemporary times.

키워드 : 작가, 주택, 디자인 요소

Keywords : Designer, Houses, Design Elements

## 1. 서론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와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현대의 미국과 현대의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모더니즘 건축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건축을 발전시켜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의 작품에서는 공간의 제반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노력이 보여 지는 한편, 영향을 끼친 거장 건축가들의 사상과 설계원칙에서 기인하는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어지기도 한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와 미이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eh)로부터 교훈을 받은 마이어가 미이스의 그리드를 기초로 보다 조직적인 건축을 발전시켜온 것과 비교하여 꼬르뷔제로부터 뿐 아니라 루이스

칸(Rouis I. Kahn)과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로부터 건축을 배운 보타는 옛 건축의 기교와 장식, 상징성을 중시하는 독특한 건축을 발전시켜왔다. 공통적으로 꼬르뷔제의 디자인 원칙과 언어를 계승하여 사용하지만, 실재를 존중하며 가볍고 투명한 건축을 선호하는 마이어의 작품과 건축물의 존재감과 정서적 측면, 장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 보타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 특성과 차이를 밝히는 일은 두 작가의 건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는 연구 작업으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취침, 식사, 학습, 휴식, 생리문제의 해결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행위를 두루 수용하는 주택은 실무를 시작하는 초년 건축가나 실내디자인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언어를 실험하고 확신하게 하는 훌륭한 대상이 되어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새로운 건축의 5형식'과 같은 꼬르뷔제의 중요한 디자인 개념이 주택의 연구를 통해서 발전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 정회원,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 본 연구논문은 2005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의 마이어와 보타 역시 주택설계를 통해 앞서 간 거장들로부터 습득한 이론을 실험하며 자신들의 건축을 개척해왔는데 이들이 발표한 적지 않은 주택작품에는 디자인 원칙과 언어의 개척과정이 그대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건축을 선도하는 두 건축가의 주택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들의 디자인 원칙과 언어의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스승들로부터 이어받은 원칙과 언어를 실험하고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키며 자신들의 건축을 개척해온 두 작가의 주택작품을 단계별로 분석, 비교해 보는 연구는 새로운 디자인을 탐구하는 국내의 건축과 실내 작가들에게 한 모범을 제시할 수 있다 믿는다. 본 연구는 실내디자인지 제13호 및 제17호에 발표된 '리처드 마이어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와 '마리오 보타 주택특성에 관한 고찰'에 이어지는 연구로 선행연구의 기초 위에 발전된 연구라 할 수 있다.

## 2. 건축사상과 건축특성

### 2.1. 리처드 마이어의 사상과 건축특성

#### (1) 건축사상

리처드 마이어는 무엇보다도 실재를 중시하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건축에서 프로그램과 대지, 주변과의 관계, 공사 방법 등은 고려사항의 최우선에 있다. 비교적 형태가 강한 그의 작품을 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형태주의적 작가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건축에서 형태는 프로그램과 대지, 주변상황, 공사 등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운데 구체화된 것들이다. 그는 자신의 건축을 형태짓기 위해 앞서간 선형자들의 작품과 역사적 형태를 참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건축역사는 나의 작품을 위해 끊임이 없는 영감의 저장소가 되어준다."<sup>2)</sup>라 하였는데 이 말을 통해 그의 작품 중 적지 않은 작품이 역사적 건축을 참조하고 있음을 짐작케 된다. 역사적 형태는 건축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하며 때로는 프로그램이나 대지상황, 시공을 고려하는 중에 다시 해석되고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기도 한다. "나의 빛담과 인용은 결코 문자적이지 않다. 그 의미들은 항상 작품 안에서 내화되었다."<sup>3)</sup> 한 그의 말에는 역사적 건축, 역사적 형태를 존중하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것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재창조의 의지가 함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마이어는 또한 매스와 공간을 드러내고 그 형태를 강조하는 요소로서 빛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빛이 행하여야 할 임무는

현존하는 물체, 표면, 공간을 지지하고 열어젖혀야 한다."<sup>4)</sup>한 그의 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마이어는 빛을 외관 뿐 아니라 형태적으로 풍요로운 내부공간을 드러내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시간의 흐름 혹은 일기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빛의 가변성을 가지 있게 생각했는데 빛으로 충만한 그의 건축의 실내는 변화와 활기가 넘치는 실내가 된다. 마이어가 갖는 백색에 대한 특별한 애착 역시 빛과 함께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는 백색이야말로 조형성이 풍부한 자신의 건축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색이라 믿었다.

#### (2) 건축의 특성

마이어 건축의 특성은, 첫째로, 근대건축의 거장들의 건축원칙과 언어를 계승하여 잘 발전시키고 융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꼬르뷔제와 미이스에 의해 발전된 어휘와 원칙은 마이어의 건축을 세우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었다. 마이어가 즐겨 사용하는 건축언어 중 원, 반원, 1/4원 등 기하학적 곡선과 형태요소로 강화된 벽난로와 굴뚝, 계단과 램프, 선박의 갑판을 차용한 데크 등은 의심할 바 없이 꼬르뷔제로부터 받아들여진 건축적 언어라 볼 수 있겠으며 2층 높이로 트인 공용공간과 단층 높이의 개인공간을 대비시켜 실내에 극적 변화를 구하는 방식 역시 시트로안 주택(Citrohan House)의 구성원칙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어의 건축에 끼친 꼬르뷔제의 영향이 잘 알려진 것과 비교해 그의 건축에 미친 미이스의 영향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마이어의 건축구성법 중, 구조로부터 파생된 그리드를 기초로 평면을 전개시켜나가는 방식이나 커다란 유리면을 외피로 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내비치는 수법은 미이스의 원칙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며, 가볍고 얇은 피막을 사용하여 실내를 한정하는 방식 또한 미이스의 건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어의 작품에서, 미이스로부터의 그리드를 배경으로 질서 있게 배열된 꼬르뷔제로부터의 형태언어들은 조직적이면서도 형태적으로 풍요로운 또 다른 건축의 모습을 보이게 되며, 미이스로부터의 유리 피복과 꼬르뷔제로부터의 대비적 공간구성은 하나로 통합되어 변화가 풍부한 실내공간을 외부로 나타내 보이게 된다.

둘째로, 마이어 건축의 특성은 이들 거장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미이스의 획일적인 상자형 공간과 경직된 구조격자는 단순히 탈피해야 할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각상자형 공간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은 평면상 외벽의 모서리에 곡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단면적으로 지붕에 곡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으며, 경직된 구조격자의 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격자틀로부터 축선을 비트는 수

1)W. Boesiger and O. Stonorow ed., Le Corbusier, 8 Vols., 르코르부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집문사, 1991), Vol. 1, p.125

2)Joan Ockman ed., Richard Meier/ Architect,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84), p.9

3)Loc. cit.

4)GA Document Extra, Richard Meier, (Tokyo: A.D.A. Edita, 1997), p.31

법으로 귀결되었다. 그의 건축에서 외벽과 지붕에 적용된 다양한 곡선은 외관에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한편 틀어진 축선은 공간구성상 강한 회전의 운동감과 예기치 못한 전환의 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경사로의 배치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하이 뮤지엄(High Museum) 시작으로 마이어의 경사로는 중심을 벗어나 외벽 가까이 위치하게 되는데, 주택 중앙에 위치한 꼬르뷔제의 사보아 저택(Villa Savoye)의 경사로는 내부공간의 움직임에 반영하여 입면에 변화와 활기를 부여하게 된다.

마이어 건축의 특성은, 또한, 시대발전예 따른 새로운 재료와 디자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유연함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이어 작품에서 보여 지는 현대적 재료로 포셀린 에나멜 패널, 알루미늄 패널 등 금속 패널과 투명도를 달리하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유리 등을 들 수 있겠는데, 특히 얇고 가벼우며 표면이 매끄러운 금속 패널의 사용은 그의 건물을 차갑고 이성적인 현대적 건물로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몇 종의 표준화된 규격으로 시공되는 금속 패널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건물 입면에 조직적인 그리드를 형성하여 외관에 통일성과 함께 변화와 리듬을 부여하게 된다. 마이어는 재료 뿐 아니라 건축언어의 관점에서 시대 언어를 적극 수용하였는데 최근 작품에 보여 지는 브리즈 솔레이유(Brise Soleil), 수평 혹은 수직의 금속 루버는 유리나 금속 패널이 주를 이루는 그의 건물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여 주게 된다.

## 22. 마리오 보타의 사상과 건축특성

### (1) 건축사상

마리오 보타는 어느 현대건축가 못지않게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작가이다. 미술이나 무용, 음악 등과 같이 건축을 '인간의 표현 양식'<sup>5)</sup>의 하나로 이해한 보타는 자신의 건축을 통해 시대의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고자 하였다. 그는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상자모양으로 귀결되는 현대적 건축의 획일적인 형태에 반대하였으며, 자신의 건축작품을 통해 주변과 조화한, 보다 향상된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차갑고 매끄러운 재료로 둘러지며 형태적으로 특징이 없는, 건조한 현대적 건축은 이러한 보타로 하여금 과거의 건축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건축물이 지니는 정서적 측면을 잘 이해한 보타는 역사적 건축물의 상징적 가치와 표현적 가치를 현 시대의 기술과 언어로써 새롭게 표현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꼬르뷔제에 의해 가능성이 확인된, 여러 모양의 기하학적 입체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것으로, 역사적 건축물에 나타나는 조적장

식을 현대적 시공기술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용자의 정서적 측면을 중시하는 보타의 생각은 일광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타는 일광을 사람들의 감성을 깨워 건축물과 대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보았다. 보타의 실내에서는 일광의 양과 방향이 치밀하게 제한되고 조절되어 있는데, 면밀하게 계산된 일광은 그의 실내를 방문한 사람들의 감성을 일으켜 독특한 공간적 경험을 하게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표현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타의 건축이 현대건축의 기능성과 합리적 해결방식까지 부인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모던 아키텍트'<sup>6)</sup>라 생각할 만큼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적 해결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건물이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 (2) 건축의 특성

보타 건축의 특성은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적, 기술적 측면을 수용하면서도 역사적 건축의 상징적, 표현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각각 독특한 철학과 원칙을 발전시켰던 스승들로부터의 교훈을 자신의 창의적 안목으로 종합시킨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보타가 꼬르뷔제로부터 모더니즘 건축의 합리적 사고와 형태의 논리를 배웠다면 칸과 스카르파로부터는 역사적 건축의 상징성과 표현성에 대해 배웠다 할 수 있겠다. 그의 건축에서, 정육면체나 원통, 원뿔 등 기하학적 입체를 기본 볼륨으로 기용하여 쉽게 인식될 수 있게 한다든지 각층의 평면을 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는 방식, 공용공간의 상부를 높게 터 단면적 변화를 구하는 방식 등은 꼬르뷔제의 설계원칙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벽돌을 사용하여 공간을 두텁게 한정한다든지 치밀하게 계산된 채광을 통해 공간의 극적 효과를 구하는 수법, 로지아(Loggia)를 두어 입면에 '깊이'<sup>7)</sup>를 주며 외벽을 원, 사각형, 아취 형태로 오래내 표정을 부여하는 방식 등은 칸의 수법을 계승한 것으로, '부분'<sup>8)</sup>의 상세한 표현을 통해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한편 지붕의 일부를 털어내 하늘의 풍경을 실내로 유입하는 방식 등은 스카르파의 수법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보타 건축의 특성은, 한편으로는, 한층 강화된 로지아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건축에서, 로지아는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을 깎아 3차원적 깊이를 주게 되며 입면과 평면계획 시대칭적 구성의 축이 되어주기도 한다. 디자인 된 소극적 공간으로서의 로지아는 또한 외부의 경관과 일광을 실내로 전달하는 통로 활용되기도 한다. 보타의 주택이 발전하면서, 주택의 정면 중앙부를 수직으로 침식하게 되는 로지아는 상부에 천창을 두게 되는데 이때의 로지아는 입면에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

5)GA Architect 20, Mario Botta, (Tokyo: A.D.A. Edita, 1984), p.11

7)Francesco Dal Co, Mario Botta, 김홍기 역, (서울: 기문당, 1992), p.11

8)A+U, Carlo Scarpa, 장성수 역, (서울: 태림문화사, 1988), p.208

5)Pro Architect 20, Mario Botta, (서울: 건축세계사, 2000), p.13

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실내에 빛을 비추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칸의 건축으로부터 취해진 것으로 여겨지는 로지아는 보타의 창의적 적용을 통해 그의 건축을 차별화하는 요소로 발전하였으며 조형적 관점에서나 구성적 관점에서, 외부공간과의 교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적공사의 특성을 심분 활용한, 장식과 상징으로 가득 찬 입면을 언급하지 않고 보타 건축의 특성을 논할 수는 없다. 장인들의 기교가 집약된 조적벽의 장식을 통해, 부분의 상세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건물에 표정을 부여하고자 한 보타는 전통적 조적기법과 현대적 공법을 접목하여 새로운 표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다양한 패턴의 치장벽,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의 상세한 표현 등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그의 건물 입면에 변화와 흥미를 더하여 주게 된다. 보타에 의해 발전된 조적 패턴 중 중요한 것으로 '수평띠'9)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주거지와 자연 사이의 '경계'10)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리콜레토 주택의 외벽에 처음 적용된 수평띠는 적색과 회색의 벽돌 켜를 교대로 쌓는 방식으로 형성한 것으로 이후, 색상 뿐 아니라 벽돌의 종류, 기법 등을 달리하는 수평띠로 발전하며 보타의 건축을 상징하는 대표적 패턴으로 발전하게 된다.

### 2.3. 사상과 건축적 특성 비교

리차드 마이어가 대지, 지형, 주변상황과 공사방법 등 실재를 중시하는 건축을 추구한 것과 비교하여 마리오 보타는 역사적 건축에서 찾아지는 건축물의 존재감과 상징적, 표현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형태를 구하는 두 작가의 방법에서 뚜렷이 보여 진다. 마이어가 특별히 선호하는 형태를 갖기보다 지형이나 대지, 주변상황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형태를 이끌어내하고자 한 것에 반해 보타는 정육면체를 비롯한 육면체와 원통, 원뿔과 같은 간결한 기초입체를 활용,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형태를 찾고자 하였다. 일광을 보는 두 사람의 시각 역시 같지 않았는데, 마이어가 형태를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일광의 역할에 주목하며 일광의 가변성을 가치 있게 여긴 것에 비해 마이어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광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외관의 조형성에 있어서도 두 작가의 작품은 저마다의 특성을 나타낸다. 보통의 경우, 육면체를 기본볼륨으로 사용하는 마이어의 건축이 모서리에 곡면벽을 사용하면서, 발코니와 계단 등 돌출요소를 적용하면서 요철이 풍부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정육면체, 원통, 원뿔과 같은 간결한 입체를 기초볼륨으로 사용하는 보타의 건축은 볼륨의 큰 형태는 그대로 유

지한 채, 주로 절삭의 기법에 의해 조형적 변화와 3차원적 깊이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관의 조형성은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속 패널과 유리라 같이 얇고 매끄러운 재료를 사용하는 마이어의 건축이 차갑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과 같이 두텁고 육중한 재료를 사용하며 중앙의 수직 로지아에 의해 표정을 얻게 되는 보타의 건축은 기념비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두 작가의 건축에서 실내공간의 차이는 실내와 외부공간이 어떻게 교류하는가 하는 교류방식에서도 보여 진다. 마이어의 실내가 커다란 유리면을 통해 풍요로운 형태를 드러내며 외부자연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반해 두터운 벽 안에 숨겨진 보타의 실내는 로지아로 대표되는 중간영역을 매개로 외부세계와 간접적으로 교통한다. 구성의 관점에서 마이어 건축의 실내가 바닥의 그리드를 모듈로 활용하며 비교적 유연한 구성을 보이는 것에 비교해 마이어의 실내는 중앙을 파고든 로지아를 축으로 하는 대칭적 구성을 보인다.

## 3. 주택작품의 비교분석

### 3.1. 초기의 주택작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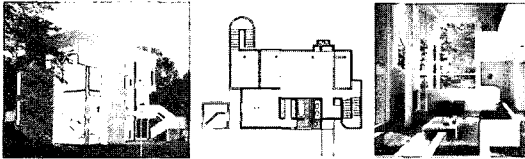

#### (1) 리차드 마이어의 초기 주택

마이어는 스미스 주택(Smith House)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하학적 곡선과 벽난로, 굴뚝, 계단, 원형기둥 등 꼬르뷔제의 언어들로 채워진 주택들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이때의 주택들은 낮과 밤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유리벽과 비교적 얇은 스테드 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는데 마이어는 이 시기의 주택을 통해 꼬르뷔제 주택의 풍부한 형태와 미이스 주택의 투명성을 결합을 시도한 듯 여겨진다. 초기의 마이어 주택과 두 거장의 주택과의 차이는 하얗게 칠하여진 스테드 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주택에서 외벽으로 씌어지는 얇은 스테드 벽은 자신의 패턴(Pattern)이나 텍스처(Texture)를 드러내기보다는 조형성이 풍부한 주택의 외관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1969년에 완성된 살츠만 주택(Saltzman House)은 사각형 상자형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이어의 의지가 보여 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마이어는 주택의 한쪽 모서리에 1/4원의 곡선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주택에 제한된 부드러움을 부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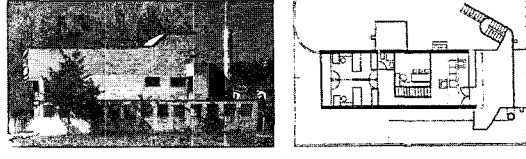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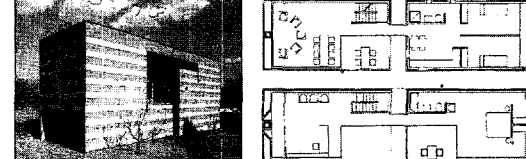
9)GA Architect 3, Mario Botta, Op. cit., p.13

10)Francesco, Op. cit., p.70

<표 1> 리차드 마이어의 초기 주택 분석

| 주택명     | 항목       | 항목별 특성  |  |
|---------|----------|---|--|
| 스미스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67<br>대지 위치 다리엔, 코네티컷<br>· 코네티컷 주, 해안가에 위치한 압벽 위 대지.                         |  |
|         | 배치 및 외관  | 배치  | · 수목을 보존하고 기반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의 건축면적을 취하는 3층 주택으로 계획.<br>· 숲 사이로 난 진입로, 솔리드 연의 정면 입구를 통과, 2층 높이로 터진 거실과 큰 창 너머 바다를 보는 시각적 씨퀀스를 의도함.  |
|         |          | 조형적 특성  | · 육면체의 기본볼륨은 데크 공간에 의해 깎여지며, 벽난로와 굴뚝, 1/2원과 1/4원의 곡선이 적용된 계단 등의 요소에 의해 형태를 부여 받음.<br>· 넓은 유리면을 통해 변화로운 실내가 외부로 투영됨.  |
|         |          | 재료  | · 백색 목재 사이딩 벽과 커다란 유리면은 가볍고 투명한 외관 형성.   |
|         | 실내 단면 구성 | 평면 및 단면 구성  | · 솔리드 벽에 의해 한정되는 낮은 개인공간과 유리면으로 둘러지는 높고 넓은 공용공간의 공간적 대비가 명확함. (개인공간은 벽구조에 의해, 공용공간은 보와 기둥구조에 의해 지지됨)<br>· 층마다 변하는 평면의 형태는 단면적으로도 복잡한 실내를 구성함.<br>· 수평통로를 사이에 두고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이 구분.  |
|         |          | 색상  | · 백색 페인트 칠은 실내의 중요한 형태를 잘 드러냄.   |
|         | 형태요소     | · 벽난로와 굴뚝, 데크의 외부 계단, 1/4원 곡면벽, 노출된 원기둥.  |  |
|         | 살조만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69<br>대지 위치 이스트 햄프턴, 뉴욕<br>·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해안을 볼 수 있는 대지.   |
| 배치 및 외관 |          | 배치  | · 브리지로 연결된 두 개의 독립적인 볼륨, 주택과 게스트 하우스를 각각 바다로 향하도록 배치. (평평한 대지에서 해안의 전망을 얻을 수 있도록 3층 구조로 계획)  |
|         |          | 조형적 특성  | · 정육면체를 기본볼륨으로 하는 주택은 한 쪽 코너에 적용된 곡면벽에 의해 시각상자형을 탈피하게 되며, 현관 입구, 계단 허부, 로지아 등의 침식과 나선계단의 첨가에 의해 요철이 풍부한, 복잡한 형태의 주택으로 발전.<br>· 개인공간을 한정하는 목재 스티드 벽의 솔리드 면과 공용공간의 투명한 유리면의 대비에 의한 외관구성.   |
|         |          | 평면 및 단면 구성  | · 스티드 벽에 의해 구획되고 지지되는 딱딱한 시각형, 개인공간과 철제 기둥에 의해 지지되고 곡면벽에 의해 한정되는 부드러운 공용공간의 대비.<br>· 1층에서 다소 좁게 계획된 공용공간은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며 수평으로 넓게 확장되어 실내에서도 해안의 전망을 효율적으로 조망하게 함. (동시에 단면적 변화를 꾀함)<br>·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구분하는 대각선 동선은 평면구성상 변화와 동적 운동감을 유발함. |
| 색상      |          | · 백색 페인트. (벽난로의 조적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섬)  |  |
| 형태요소    |          | · 사선의 계단, 나선형 계단, 부분원의 곡면벽, 독립적인 벽난로, 1/2원의 곡면벽, 'S'자형의 곡면벽, 노출된 원기둥과 보.          |  |

<표 2> 마리오 보타의 초기 주택 분석

| 주택명      | 항목       | 항목별 특성   |   |
|----------|----------|--|---|
| 스타비오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67<br>대지 위치 스타비오, 티치노<br>· 도시의 북측 두 도로가 만나는 곳, 코너에 위치한 직사각형 대지.               |   |
|          | 배치 및 외관  | 배치   | · 남북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대지의 북측 경계선을 따라 주택을 배치, 좁고 긴 직사각 주택 자체가 대지의 경계벽이 되도록 의도함.   |
|          |          | 조형적 특성   | · 긴 사각 상자형 볼륨은 지면을 따라 파고 든 차고와 2층의 로지아에 의해 3차원적 깊이를 얻게 되며 북측면과 지붕의 돌출된 채광수단에 의해 조형적으로 흥미롭게 발전됨.   |
|          |          | 재료   | · 노출 콘크리트 (꼬르뷔제 작품의 거친 콘크리트 표면을 연상케 함)  |
|          | 실내 단면 구성 | 평면 및 단면 구성   | · 1층에 최소의 설비공간만을 두며 지면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좁고 긴 직사각 공간을 깊이 방향으로 분할하는 침실 구획법, 공용공간의 상부를 더 낮은 개인공간과 대비시키는 방식 등은 꼬르뷔제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음.<br>· 거실과 아동침실이 2층과 3층에서 단계적으로 밖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다이닝 공간의 상부를 뜬으로써 단면적 변화를 꾀함.   |
|          |          | 색상   | · 아동실과 서재의 도어에 빨강과 노랑의 원색을 사용. (강조색으로 활용)   |
|          | 형태요소     | · 독립적인 쉼틸레버 계단, 굴뚝, 벽면과 지붕의 돌출 채광 창, 좁고 가파른 실내 계단.                                 |   |
|          | 리골레토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76<br>대지 위치 리골레토, 티치노<br>· 나지막한 구릉 아래,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  |
| 배치 및 외관  |          | 배치   | · 대지의 북측 경계선을 따라 가까이 주택을 배치, 마을의 인위적으로 계획된 환경과 마을 밖의 자연환경의 경계로서 상징적 의미 부여.  |
|          |          | 조형적 특성   | · 좁고 긴 직사각 볼륨은 중앙의 질석부에 의해 서측과 동측 요소로 분절되며 조형적으로 흥미있는 주택이 됨.<br>· 중앙 질석부와 함께, 반복되는 작은 정사각 창과 콘크리트 원형 창, 좁고 긴 수직 슬리트 등의 요소는 주택에 독특한 표정을 부여함.   |
|          |          | 재료 패턴  | · 적색과 회색의 벽돌켜를 교대로 쌓아 형성한 외벽의 수평띠는 주택이 갖는 경계의 의미를 강화함.  |
| 실내 단면 구성 |          | 평면 및 단면 구성   | · 중앙 질석부에 의해 동측과 서측으로 분절된 주택은 동측에는 침실을, 서측에는 거실과 서재를 두어 밤과 낮의 공간구분을 명확히 함.<br>· 1층에 차고와 최소의 서비스 공간만을 배치하는 수법과 아동침실의 분할법은 스타비오 주택과 유사.<br>· 외부 시각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거실 및 주인침실은 로지아를 통해 외부와 시각적으로 교류하며 일광을 받아들임.<br>· 간접 채광으로 인해 다소 어두운 실내는 반복되는 작은 창과 수직 슬리트 창,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에 의해 신비롭게 밝혀짐. |
|          |          | 색상   | · 벽에 칠해진 백색 페인트는 조적 패턴을 드러내며 실내를 단정하게 정리해 줌.  |
| 형태요소     |          | · 벽난로에 적용된 부분원의 큰 아치, 실내 벽에 요철을 주는 수직 창.   |   |

(2) 마리오 보타의 초기 주택

보타의 초기 주택에서는 스승들의 원칙과 언어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방법을 찾고자 한 보타의 의지가 보여 지는 듯 하다. 베니스 대학 재학 시 계획한 스타비오 주택(Single-Family House, Stabio)은, 1층에 최소의 설비공간만을 배치하는 방식과 직사각형 침실을 길이로 방향으로 다시 좁고 길게 구분하는 방식, 돌음계단과 굴뚝 등을 형태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꼬르뷔제의 주택을 따르고 있다. 비록 꼬르뷔제의 원칙을 실험하고 있으나 스타비오 주택에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 보타

의 노력이 보여 지기도 한다. 사다리꼴로 돌출한 채광창과 북측 입면의 반복되는 정사각 창은 이러한 보타의 노력을 반영한다 생각할 수 있다. 스타비오 주택이 꼬르뷔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이후에 계획된 카데나조 주택(Cadenazzo House)과 리골레토 주택(Single-Family House, Ligoretto)은 칸과 스카르파의 원칙과 언어로 채워졌다. 로지아를 통한 내부와 외부공간의 교류, 서비스 공간과 주 공간의 명쾌한 구분, 커다란 원형 개구부와 좁고 긴 '수직 슬리트'1), 자유롭게 배치된 크고 작은 창과 반복되는 작은 정사각 창 등

칸과 스카르파의 원칙과 언어는 카테나조 주택과 리콜레토 주택을 통해 실험되고 다듬어져 보타의 주택을 발전시키는 원천으로 새롭게 활용되게 된다.

(3) 초기의 주택 비교

주변 환경의 짜임과 그것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마이어나 보타의 주택은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실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마이어가 대지의 생긴 모양과 지형, 공사방법, 심지어는 수목의 보존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을 앉히는 것과 비교하여 보타는 주택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하는 배치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앞의 분석에서, 암반 대지 위에 주택을 계획하며 기반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콤팩트하게 앉힌 다거나 평평하고 너른 대지 위에 해안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개의 동을 분리하는 마이어의 배치와 '경계벽'<sup>12)</sup>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대지경계선 가까이 근접시켜 주택을 앉히는 보타의 배치는 주택 배치에 있어서 두 사람의 생각을 잘 설명해 준다.

비례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두 작가의 초기 주택은 사각 상자형 볼륨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자형 기본볼륨이 기하학적 곡선벽과 독립적 계단, 벽난로, 굴뚝과 같은 꼬르뷔제의 형태적 어휘에 힘입어 조형적으로 세련되어진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미이스의 영향이 보이는 마이어의 주택과 칸과 스카르파의 교훈이 살아있는 보타의 주택은 외관상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마이어의 주택에서 미이스의 영향은 얇은 외벽과 커다란 유리벽의 사용에서 보여 지는데 커다란 유리벽은 형태적으로 풍부한 실내를 외부로 내비쳐 외관의 일부가 되게 한다. 이에 반해, 두터운 외벽을 사용하는 보타의 주택 외관은 칸의 것을 연상케 하는 로지아에 의해 3차원적 깊이를 얻으며, 부분의 상세한 표현, 조적벽의 장식 등에 의해 독특한 표정을 부여 받는다.

실내공간은 두 작가 모두의 주택에서 꼬르뷔제의 영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높고 넓게 트인 낮의 공간과 낮고 작게 구획된 밤의 공간의 공간적 대비나 층마다 변화하는 평면, 노출된 원기둥을 비롯한 벽난로, 굴뚝 등의 형태적 언어는 전형적인 꼬르뷔제의 원칙과 언어로 두 작가의 주택실내를 풍요롭게 하여준다. 주택의 실내에서 두 작가의 차이는 실내의 주요 생활공간이 외부공간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하는 관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 마이어의 실내가, 커다란 창을 통해, 외부와 서로의 자연환경과 디자인된 환경을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에 반해, 주택의 안쪽에 위치한 보타의 실내의 주요 공간은 인접한 로지아를 통해 외부와 간접적으로 교류하며 사적 생활을 보호받고 있다. 외부공간과의 이러한 관계는 전망의 문제 뿐 아니라 일광의 도입과도 연결되게 되는데 마이

11)GA Architect 3, Mario Botta, Op. cit., 1984,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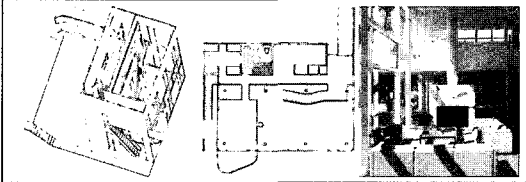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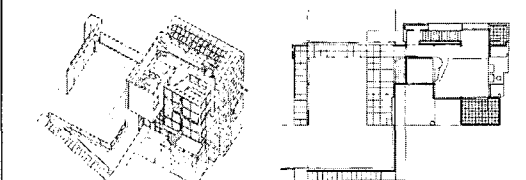
12)Francesco, Op. cit.,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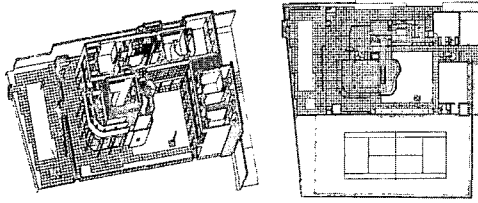
어의 실내가 빛으로 충만한 활기 넘치는 실내가 되는 반면, 로지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광을 받는 보타의 실내는 다소 어두운 차분한 실내가 된다. 마이어 주택의 실내에는 낮의 공간과 밤의 공간 간의 공간적 대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이 보여 지는데 낮의 공간에 곡면벽을 적용하여 규칙적인 사각 상자형 침실과 형태적으로 대비시킨다든지 낮의 공간은 철제 기둥에 의해, 침실은 목재 스타드 벽에 의해 지지되도록 하여 두 공간을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32. 발전기의 주택작품 비교

(1) 리차드 마이어의 발전기 주택 분석

<표 3> 리차드 마이어의 발전기 주택 분석

| 주택명         | 항목         | 항목별 특성  |
|-------------|------------|---|
| 삼 버그 주택     | 그림         |    |
|             | 개요         | 원공 1974, 위치 차파퀴, 뉴욕<br>대지 차파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숲이 우거진 언덕 암반 대지.  |
|             | 조형적 특성과 외관 | · 2층 높이의 직사각 볼륨은 얇게 침식한 입구와 그 대각선 방향으로 돌출한 곡면 난간의 발코니, 발코니 하부의 곡면 유리벽 등의 요소에 의해 조형성을 부여 받게 됨.<br>·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 변화로운 실내공간을 외부로 투영.   |
|             | 평면 및 단면 구성 | · 구조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유리창 프레임의 패턴.<br>· 정면의 두터운 벽 안에 작은 방들과 유리면으로 둘러진, 높고 넓은 공용공간의 대비가 명확함.<br>· 입구의 침식부와 발코니의 돌출, 북서측의 솔리드 벽과 남동측의 유리면 등 대각선 방향의 대응을 통한 균형.<br>· 브리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주인침실은 마치 거실 상부에 둘러 있는 듯 표현됨.<br>· 밤과 낮의 공간을 구분하는 2층 통로는 전망통로로, 조형성이 풍부한 실내공간과 창 너머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
|             | 형태요소       | · 곡면 난간을 갖는 발코니, 곡면 유리벽, 좁고 가파른 계단, 독립적인 벽난로와 굴뚝, 굽은 계단, 노출된 원형기둥 및 보.  |
| 지오 반 니 터 주택 | 그림         |   |
|             | 개요         | 원공 1983, 위치 피츠버그 교외에 위치, 이웃하는 주택으로 둘러진 대지.  |
|             | 배치 및 외관    | · 이웃 주택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고 동시에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배치. (육외 구조물 활용)<br>· 차고와 연결된 정육면체형 기본볼륨은 볼륨을 깎아 형성한 크고 작은 테라스와 발코니에 의해 절삭되어 요철이 풍부한, 복잡한 형태로 발전됨.   |
|             | 재료 및 단면 구성 | · 에나멜 철제 패널은 입면에 정사각 그리드 형성.<br>· 구조로부터 파생된 바다 그리드를 기초로 세부공간을 배치하며 질감을 정하는 조직적인 평면구성.<br>· 정사각형의 큰 틀 안에서 층마다 자유롭게 변하는 평면형태는 단면적으로도 변화가 풍부한 실내를 구성.<br>· 다이닝 룸 및 게스트 룸, 거실, 주인침실을 각각 층별로 배치.   |
|             | 형태요소       | · 계단실은 상부 천장에 의해 밝혀짐.<br>· 원기둥, 높이 둘러진 주인 침실 (돌출요소), 곡면 유리벽, 3층의 곡면 난간  |

|         |   |  |               |
|---------|---|--|---------------|
| 액커버그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86  | 위치 말리브, 캘리포니아 |
|         | 배치  | · 북측으로 해안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바다를 보는 대지.<br>· 연차적으로 전개되는 전망을 의도한 배치.<br>· 2층의 'L'자형 주택은 'L'자형 게스트 하우스와 결합, 전체적으로 'C'자 형을 이룸. (아늑한 내정 형성) |               |
|         | 배치 및 외관   | · 'L'자형 주택은 돌출한 차양구조와 거실의 북측의 곡면벽, 거실 상부의 상승된 지붕에 의해 조형성을 부여 받음.   |               |
|         | 재료 패턴   | · 백색 스테코 벽, 에나멜 철제 패널 (정사각 그리드 형성), 유리 블럭  |               |
| 실내      | 평면 및 단면 구성                                      | · 'L'자형 주택은 통로에 의해 1층 높이의 다이닝 및 침실 영역과 2층 높이의 넓은 거실로 구분됨.<br>· 발코니 층과 상승된 천장을 갖는 거실은 단면적으로도 변화가 풍부한 거실이 됨.                       |               |
|         | 재료 색상   | · 백색 페인트칠의 벽과 천장은 실내공간의 형태를 잘 드러냄. 흰 벽은 미술품의 좋은 배경이 되어줌.   |               |
| 형태요소    | · 차양구조, 자유로운 곡면벽, 상승된 지붕, 독립적인 벽난로와 굴뚝, 노출 원기둥.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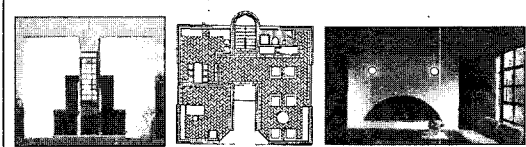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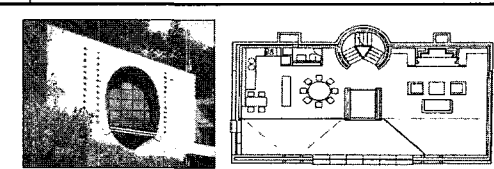
뉴욕주 차파퀴에 세워진 샴버그 주택(Shamberg House)은 단면구성의 관점에서 한층 발전된 면모를 보여준다. 마이어는, 이 주택에서, 거실 상부에 주인침실을 가볍게 띄워줌으로써 단면적 변화를 부여하며 조형적으로 더욱 흥미 있는 실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유리 피복에 의해 부드러운 형태로 한정되는 공용공간과 솔리드 벽에 의해 사각형 공간으로 정의되는 개인공간의 대비 역시 샴버그 주택에서 한층 더 명확하게 보여 지는데 복잡한 단면과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의 대비는 어느 사이언가 마이어의 주택을 특징짓는 한 전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샴버그 주택보다 9년 늦게 완공된 지오반니티 주택(Giovanitti House)은 실내구성의 측면에서 샴버그 주택의 특성을 이어받고 있으나, 외벽제로 에나멜 철제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 외관상 이전의 주택과 차이를 나타낸다.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되는 에나멜 철제 패널은 자연스럽게 입면에 사각형 그리드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의 그리드는 주택의 입면에 변화와 리듬을 생성하는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해안가, 넓은 대지 위에 계획된 액커버그 주택(Ackerberg House)에서는 외부공간을 다루는 마이어의 솜씨를 볼 수 있다. 마이어는 '—'자형 게스트 하우스와 'L'자형 주택을 연결, 삼면이 건물로 둘러진 아늑한 뜰을 조성함으로써 액커버그 주택의 입구에서부터 거실에 도달하는 동안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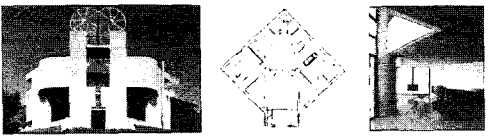
## (2) 마리오 보타의 발전기 주택 분석

이전의 실험적 주택들과 비교하여, 프레가소나 주택(Single-Family House, Pregassona) 이후 보타의 주택은 일정한 형식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프레가소나 주택은 정육면체를 기본볼륨으로 하는 3층 주택으로, 특별한 돌출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단순한 육면체 볼륨을 유지하고 있다. 외관은 정면의 중앙부를 절삭하여 형성한 로지아에 의해 3차원적 깊이를 얻게 되며 수직의 로지아와 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칭적 구성에 의해 다소 엄격한 느낌을 부여받게 된다. 실내를 깊숙이 침투한 로지아는 평면을 좌우로 분할하여 평면 역시 대칭적 구성이 되게 하는데 기능에 따라 층마다 형태가 변하는 평면은

<표 4> 마리오 보타의 발전기 주택 분석

| 주택명      | 항목   | 항목별 특성   |               |
|----------|--|--|---------------|
| 프레가소나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80  | 위치 프레가소나, 티치노 |
|          | 배치   | · 도시의 북측, 언덕 중턱 주거지에 위치한 작은 사각형 모양의 대지.  |               |
|          | 배치 및 외관  | · 조형적 특성<br>· 순수한 정육면체 볼륨의 정면과 양 측면의 중앙부를 절삭, 조형적 변화를 가함.<br>· 상층부로 올라가며 좁아지는 정면의 절삭부와 상부의 삼각형 천장, 좌우 대칭형 구성은 기념비적 인상을 창출함.  |               |
|          | 평면 및 단면 구성   | · 각 공간은 정면 절삭부의 좌우측에 대칭으로 배치됨.<br>· 낮은 공간과 침실을 층별로 구분하며, 서비스 공간을 북측에, 생활공간을 남측에 두는 기능적 구성.<br>· 각 층의 평면은 기능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함.<br>· 계단홀에서 각 공간으로 진입, 별도의 통로를 갖지 않은 콤팩트한 구성. 계단홀은 3개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좁은 수직공간을 포함.<br>· 침실은 외부 시선으로부터 감춰져 있으며 사적 테라스를 통해 외부와 교류.   |               |
| 채광       | · 대부분의 공용공간은 좁고 높은 수직 절삭부와 그 상부의 천장을 통해 일광을 받음.                              |  |               |
| 형태요소     | · 단계적으로 좁아지는 수직 절삭부, 삼각형 천장, 계단실의 1/2원 돌출 벽.                                 |  |               |
| 마싸그노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1981  | 위치 마싸그노, 티치노  |
|          | 배치   | · 동측으로 시가지를 내려다 보는 산언덕 경사지 대지.   |               |
|          | 배치 및 외관  | · 배치<br>· 경사지 수목과 대비, 시가지에서 조적 기교로 장식된 주택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배치.<br>· 조형적 특성<br>· 배면 일부가 지면에 묻힌 직육면체 볼륨은, 정면 개구부의 창이 닫혔을 경우, 비교적 단순한 육면체를 유지하나 창이 열렸을 때는 중앙부가 깊이 패어진 변화된 모습을 보임.<br>· 수평의 직사각 정면은 절삭부를 틈짓는 커다란 원형 개구부와 표면의 수평면, 사선의 창살, 장식적인 콘크리트 인방 등에 의해 독특한 표정을 부여 받음.<br>· 패턴<br>· 적색과 회색 벽돌커가 형성하는 수평면, 사선의 창살. |               |
|          | 평면 및 단면 구성   | · 공용공간과 개인공간, 서비스 공간과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방식, 콤팩트한 구성법은 프레가소나 주택과 유사.<br>· 중앙의 로지아는 2층과 3층의 생활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며 원형 개구부에 의해 철저한 외부전경을 실내에 전달함.<br>· 원형 개구부에 창을 설치, 로지아의 실내 변화를 꾀함.   |               |
| 채광       | · 로지아는 상부의 삼각형 천장을 통해 채광.  |  |               |
| 형태요소     | · 장식적 인방을 갖는 원형 개구부, 돌출된 원통형 계단실, 수직 슬리트와 연결된 정사각 창, 3차원적 구조의 아취 개구를 갖는 벽난로. |  |               |

|          |  |   |    |            |
|----------|--|---|----|------------|
| 브레간조나 주택 | 그림   |                        |    |            |
|          | 개요   | 완공 1988   | 위치 | 브레간조나, 티치노 |
|          | 배치   | · 'T'자로 만나는 도로의 코너에 위치한 직사각형 대지.  |    |            |
|          | 배치 및 외관  | · 정육면체 볼륨의 모서리로부터 돌출한 정면벽이 두 도로가 만나는 코너를 보도록 배치.  |    |            |
|          | 조형적 특성   | · 한 쪽 모서리가 대지의 코너를 보도록 배치된 정육면체의 기본볼륨은 그 모서리 부분을 절삭해 만든 포오치와 로지아, 정면 돌출벽, 3층의 곡면벽 등의 요소에 의해 조정적으로 다듬어짐. |    |            |
|          | 패턴   | · 흰색과 회색의 벽돌켜가 만드는 수평띠.   |    |            |
| 실내       | 평면 및 단면 구성   | · 정사각 평면의 모서리 부분을 절삭한 로지아에 의해 실내공간은 'L'자 모양으로 정의됨.<br>· 실내에서는 로지아 정면 개구부와 천장을 통해 산과 하늘을 조망할 수 있음.       |    |            |
|          | 채광   | · 주요 공간은 로지아 상부의 천장을 통해 하늘 방향으로 일광을 받음.   |    |            |
| 형태요소     | · 수직 개구부를 갖는 'H'형 정면벽, 침실을 한정하는 곡면벽, 원통을 반으로 쪼개어 벌린 모양의 천장, 콘크리트 원형 창. |   |    |            |

중앙의 계단홀을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있어 콤팩트한 짜임을 보인다. 프레가소나 주택의 이러한 특성은 이후의 주택에도 계승되어 보타의 주택을 특징짓는 고유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사진 대지에 지어진 마싸그노 주택(Single-Family House, Massagno)에서는 수직의 로지아 대신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갖는 로지아가 보여 지는데 보타는 원형 개구부에 창을 설치하여 로지아가 완벽한 실내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레가소나 주택의 로지아 상부에 설치되었던 삼각형 모양의 작은 천장은 브레간조나 주택(Single-Family House, Breganzona)에 이르러 원통을 둘로 쪼갠 모양의 특이한 형태의 천장으로 발전되었다. 브레간조나 주택 이후, 천장은 채광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외관에 표정을 주는 요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3) 발전기의 주택 비교

보타의 배치가 주택과 주변의 대비를 강화하여 주택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배치라 한다면 마이어의 배치는 주택으로 진입하며 만나게 되는 시각적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배치라 할 수 있다. 산언덕 경사지에 위치한 마싸그노 주택과 해안가 대지 위에 지어진 액커버그 주택은 두 사람의 이러한 주택 배치법을 잘 설명해 준다. 단순한 직사각 볼륨의 마싸그노 주택에서 원형 개구부와 수평띠로 치장된 직사각 정면이 주변의 녹색 수목과 대조되어 화려한 면모를 드러내도록 배치된 것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C'자 모양을 띠는 액커버그 주택에서는 연차적으로 전개되는 전망의 조직을 강화하도록 배치되었다. 액커버그 주택에서, 사람들은 성벽과 같은 정문을 통과하여 열주 사이로 안뜰을 보게 되며 다시 좁은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창 너머 바다를 보게 된다.

발전기 보타 주택 외관의 특성으로 주택의 정면, 중앙부를 파고든 수직의 로지아와 이를 축으로 하는 대칭적 구성을 들 수 있겠다. 기초적인 입체의 중앙부를 침식한 수직 로지아는 주택의 정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기념비에서나 찾을 수 있을 법한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이에 반해 마이어 주택의 외관은 비대칭적 균형을 선호한다. 주로 절삭의 기법에 의존하는 보타 주택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순수한 기초입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테라스, 발코니 등의 첨가 요소와 다양한 곡면벽이 적용되는 마이어 주택의 외관은 요철이 풍부한 보다 복잡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비대칭적 구성을 선호하는 마이어가 구성상 대응되는 요소를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여 균형을 피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칭적 구성의 보타 주택은 벽돌벽의 장식과 자유로운 상세 표현, 창의 배치를 통해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활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 역시 흥미롭게 여겨진다. 해안가 대지 위에 계획된 액커버그 주택에서 강한 일광을 조절하기 위해 가용된 차양구조 역시 브레간조나 주택에서의 천창구조와 견주어 볼 만하다 하겠는데 차양구조와 천창구조는 각각 마이어 주택과 보타 주택의 외관에 형태를 부여하는 요소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두터운 벽’<sup>13)</sup> 안에 갇힌 개인공간과 투명한 유리벽에 의해 둘러지는 높고 넓고 밝은 공용공간의 대비는 마이어 주택의 실내를 대표하는 전형으로 자리 잡은 듯 보인다. 특히 다양한 곡선의 곡면벽과 거실 상부에 들려 있는 듯 한 침실, 전망통로와 오픈 계단, 벽난로와 굴뚝 등의 요소로 풍요로워진 마이어 주택의 공용공간은 다른 작가의 주택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 단면적 변화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마이어의 주택과 비교한다면 보타 주택의 단면 변화는 그리 대단하다 할 수는 없겠다. 오히려, 발전기 보타 주택의 실내 특성은 콤팩트한 짜임과 로지아를 축으로 하는 대칭적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설비공간을 한쪽 벽에 집중시키며, 별도의 통로를 두지 않은 채 중심축선 상에 위치한 계단홀을 통해 실내 각 공간에 이르도록 한 구성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놀랄만한 효율성을 보인다. 이 때의 보타 주택에서는 각 층을 연결하는 좁은 수직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주택의 중앙에 위치하며 상부의 천창과 연결되는 수직공간은 로지아와 함께 실내에 일광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 3.3. 근래의 주택작품 비교

#### (1) 리처드 마이어의 근래 주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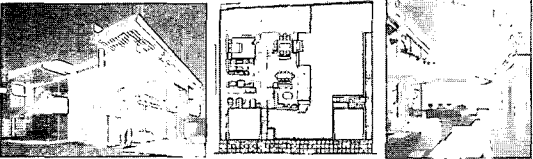
마이어 주택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주택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는 이런 원칙은 변화하는 시대의 재료와 언어를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13)Joan, Op. cit., p.65



발전해 왔다. 2001년에 완공된 비치 하우스(Beach House)에는 시대의 재료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이어의 유연한 태도와 이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다시 해석하여 사용하는 창의적 안목이 잘 보여진다. 정면 담장에 씌어진 반투명 유리화 여러 모양의 차양 구조는 외벽재, 알루미늄 패널과 조화하여 비치 하우스를 한층 더 세련된 현대적 주택으로 발전시켰다. 비치 하우스에서는 패턴의 방향에서도 예전의 주택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알루미늄 패널과 반투명 유리면의 가로 패턴 뿐 아니라 루버 차양과 난간 레일은 모두 수평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표 5> 리차드 마이어의 근래의 주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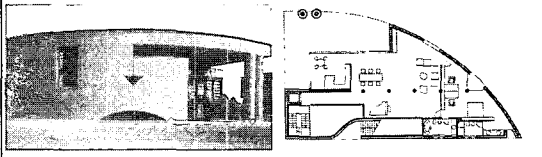
| 주택명    | 항목      | 항목별 특성  |   |
|--------|---------|---|---|
| 비치 하우스 | 그림      |  |   |
|        | 개요      | 원공 2001, 위치 캘리포니아 남부<br>대지 남측으로 바다를 보는 해안가, 성토된 대지.                               |   |
|        | 배치 및 외관 | 배치  | · 주택과 차고, 차고에서 바다를 향해 뻗은 담장이 두 개의 뜰을 형성.<br>· 반투명 유리의 정면 벽을 통과한 후, 작은 뜰을 거쳐 주택의 현관 홀로 들면, 거실 상부에 떠 있는 서재에 의해 틀지어진 거실과 바다를 조망하도록 계획.                         |
|        |         | 조형적 특성  | ·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로 지어진 상자 모양의 주택은 돌출된 발코니의 곡면벽과 루버차양을 비롯한 여러 모양의 차양구조에 의해 현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지닌 형태의 주택으로 발전함.   |
|        | 실내      | 재료 패턴   | · 알루미늄 패널, 스테코 벽, 유리벽.<br>· 알루미늄 패널과 반투명 유리벽의 긴 직사각 그리드.<br>· 루버, 철제 난간은 수평을 강조.  |
|        |         | 평면 및 단면 구성  | · 사각형 공간으로 작게 계획된 개인영역과 곡면벽을 갖는, 2층 높이의 밝은 거실의 대비. (공간적, 형태적 대비)<br>· 단면적으로 변화있고 형태적으로 풍요로운 거실은 커다란 유리면 너머 외부로 그 형태를 드러내 외관의 일부가 됨.<br>· 거실은 또한 천장에 의해 밝혀짐. |
|        |         | 색채  | · 백색의 벽과 천장은 풍요로운 실내 형태를 잘 드러낼 뿐 아니라 요소소 배치된 미술품의 훌륭한 배경이 되어줌.  |
|        | 형태요소    | · 돌출된 곡면벽 발코니, 루버차양과 매단 차양, 수직 차양, 벽난로와 굴뚝, 거실 상부에 떠 있는 곡면의 서재, 노출 원기둥.           |   |

(2) 마리오 보타의 근래 주택 분석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보타의 주택설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90년 이후 실현된 몇 되지 않는 주택 중, 이탈리아의 베르나레지오에 지어진 레델리 주택(Villa Redaelli)은 대칭을 벗어난 유연한 구성으로 이전의 주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접한 연립주택의 북측 끝을 종결짓는 의미로 택하여진, 장원 원통을 4분한 모양의 레델리 주택은 중앙의 로지아 대신 모서리 부분을 깎아 만든 포티코에 의해 조형적으로 흥미 있는 주택이 되게 되는데 포티코의 커다란 절삭과 창, 기둥의 자유로운 배치는 주택의 입면에 이전의 주택에서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다. 발전기의 주택과 비교하여 레델리 주택의 차이점은 유리면의 증가에서도 보여진다. 입구 현관에서 시작된 유리벽은

3층까지 연결되는데 커다란 투명 유리면과 두터운 슬리트 벽돌 벽의 대비는 완고한 이미지의 보타의 주택에 얼마간의 융통성을 허락하게 된다.

<표 6> 마리오 보타의 근래의 주택 분석

| 주택명    | 항목      | 항목별 특성   |  |
|--------|---------|--|--|
| 레델리 주택 | 그림      |  |  |
|        | 개요      | 완공 2000, 위치 베르나레지오, 밀란, 이탈리아<br>대지 남쪽으로 길게, 선 형으로 배치된 베르나레지오 연립주택의 북측, 끝 부분에 위치.   |  |
|        | 배치 및 외관 | 배치   | · 선형으로 배열된 연립주택의 끝 부분을 종결짓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배치.<br>· 공원을 향하여 열린 배치.  |
|        |         | 조형적 특성   | · 장원의 원통을 네 쪽으로 쪼개 모양의 3층 볼륨은, 포티코와 옥외 계단 상부의 절삭에 의해 조형적으로 다듬어지며 여러 모양의 개구부에 의해 표정을 부여받음.<br>· 절삭부와 창, 개구부의 배치는 비대칭적 구성을 보임.   |
|        | 재료      | · 테라코타 벽돌, 3층까지 연결되는 커다란 유리벽.  |  |
|        | 실내      | 평면 및 단면 구성   | · 기하학적으로 다듬어진 외관과 비교하여 실내는 대칭을 벗어난 유연한 구성을 보임.<br>· 서비스 공간은 동측 벽에 붙어 집중시킴.<br>· 2층에는 주인침실과 공용공간이, 3층에는 서재와 개인공간이 배치됨.<br>· 실내공간은 로지아 혹은 테라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와 교류함.<br>· 3층 높이의 포티코는 실내와 외부 사이에서 중간적 성격의 전이공간을 창출함. |
|        |         | 채광   | · 계단홀과 3층의 통로는 천장에 의해 밝혀짐.   |
|        |         | 형태요소   | · 포티코와 계단 상부의 절삭, 역삼각형 및 원형 창, 직사각 및 아치 개구부, 원기둥, 부분 원 및 'S'자형 곡면벽, 노출 원기둥, 원형 천장.   |

(3) 근래의 주택 비교

근래에 발표된 마이어 주택이 시대의 재료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더욱 현대화된 면모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2000년, 완공된 보타의 주택은 대칭적 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세워진 비치 하우스에서 투명과 반투명 유리, 알루미늄 패널, 다양한 차양구조는 발코니의 곡면과 조화하여 이성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잃지 않는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투명과 반투명 유리면의 증가는 비치 하우스의 실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이어는 브리지의 바닥과 천장에 유리를 기용, 위로부터의 채광을 가능하게 하여 거실을 더욱 밝게 빛나는 실내가 되게 하였다. 마이어 주택의 이러한 변화와 비교한다면 보타의 주택은 대칭의 틀을 벗어나 이전보다 한층 더 자유로워진 외관과 실내 모습을 보여준다. 장원의 원통을 4분하여 하나를 취한 것과 같은 모양의 레델리 주택은 남서측 모서리를 깎아 형성한 포티코에 의해 대칭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게 되며 강한 긴장감을 부여받게 된다. 주택의 서측 입면에서는 수직 슬리트와 그 끝에 매달린 역삼각형 창만이 중심을 암시할 뿐 대칭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비대칭인 기본볼륨의 형태에서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내구성 역시 이전의 주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

연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커다란 유리벽의 활용에서도 보타의 주택은 마이어의 주택과 차이를 나타낸다. 포티코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레델리 주택의 커다란 유리벽은 마이어 주택의 유리벽과는 달리 실내공간을 외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 4. 비교분석의 종합

두 작가의 주택작품을, 디자인 원칙과 요소를 중심으로, 초기와 발전기, 근래의 작품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앞장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표 7, 8>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7> 공통점 분석을 통한 특성 파악

| 공통점                                       | 마이어 주택의 특성   | 보타 주택의 특성   |
|---|--|---|
| 천장과 차이에 의한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의 구분                 | · 곡면벽이 적용될 뿐 아니라 유리면으로 둘러지는 공용공간은 기둥구조에 의해 지지되어 내력벽으로 지지되는 슬리드 벽의 사각형 공간, 개인공간과의 대비를 더욱 명확히 함. | · 두 공간 사이의 천장고 차이는 보타 고유의 주택으로 발전되며 다소 희미해짐. 공용공간의 높은 천장은 주택의 전 층을 단면적으로 연결하는 좁고 높은 수직공간으로 발전됨. |
| 원, 1/2원, 1/4원 등 기하학적 곡선의 곡면벽을 활용한 형태추구.   | · 독립 계단과 계단실, 난간벽, 외벽 등에 두루 적용되며 's' 자형 곡선 혹은 자유곡선의 곡면벽 활용으로 발전됨.                              | · 원, 1/2원 혹은 부분원 형태로 계단실과 외벽에 비교적 제한적으로 사용됨.  |
| 벽난로와 굴뚝, 독립적인 계단, 노출 기둥 등의 요소를 형태 요소로 활용. | · 벽난로는 실내 뿐 아니라 외관에 형태를 주는 요소로도 활용됨.<br>· 노출 기둥은 노출 보와 함께 공용공간의 구조를 드러냄.                       | · 부분원의 넓은 아취 개구부를 갖는 벽난로에서는 칸의 디자인 언어가 합성되어 보여짐.  |

마이어와 보타 주택의 공통점은 꼬르뷔제의 원칙과 언어를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짐. 이들 원칙과 언어는 두 사람의 조형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완성함.

<표 8> 리차드 마이어 주택과 마리오 보타 주택 비교분석

| 항목     | 마이어 주택의 특성   | 보타 주택의 특성   |  |
|--------|--|---|--|
| 배치의 특성 | · 지형, 대지 및 주변 상황, 공사 등 실재를 중시하는 배치.<br>· 연차적으로 전개되는 시각적 경험을 의도하는 배치. | · 경계, 종결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배치.<br>· 주변과의 대비를 강화, 주택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배치.         |  |
| 외관     | 볼륨   | · 보통의 경우 육면체를 기본볼륨으로 사용. 발코니, 테라스 등의 돌출요소와 다양한 곡면벽을 적용, 형태적으로 풍요롭게 발전됨. | · 정육면체, 원통 등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을 선호함. 볼륨의 정면, 중앙을 침식하는 로지아의 질서를 통해 조형적 변화를 구하며 깊이를 부여함. |
|        | 구성 원칙  | · 비대칭적 구성을 보임. (대응 되는 요소를 대각선 상에 배치, 균형을 유지)                            | · 대칭적 구성을 보임. (조적 장식, 자유로운 상세표현, 다양한 창과 개구부 배치를 통한 변화 부여)                        |
|        | 이미지  | · 차갑고 이성적인 현대적 이미지를 지니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잃지 않음.                               | · 재료가 주는 느낌은 따뜻한 반면 수직 로지아는 기념비적 이미지 창출.   |
|        | 재료   | · 스티드 벽, 금속제 패널, 유리를 사용하는 가볍고 투명한 주택.                                   | · 콘크리트 볼륨과 벽돌을 사용하는 두텁고 육중한 주택.  |
| 대표적 패턴 | · 금속제 패널이 보여주는 사각 그라드 패턴.  | · 색상이 다른 벽돌을 교대로 쌓아 형성한 수평띠 패턴.   |  |

| 실내   | 평면 및 단면 특성   | · 공용공간과 개인공간 사이의 공간적, 형태적 대비가 뚜렷함. (벽구조의 개인공간 대비 기둥구조의 공용공간)<br>· 단면적 변화가 많고 형태적으로 풍요로운 실내는 큰 유리면 너머 외부로 노출되어 외관의 일부가 됨.<br>· 그리드를 기초로 하는 자유로운 공간 배치. | · 설비의 집중과 계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배치로 콤팩트한 짜임새 보임.<br>· 주요 생활공간은 두터운 벽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로지아를 통해 외부와 간접적으로 교류.<br>· 로지아 축을 기준으로 하는 대칭적 공간배치. |
|------|--|---|---|
|      | 일광   | · 커다란 유리면을 통해 일광을 제한 없이 받아들임.<br>· 가변적 일광은 실내에 변화와 활기를 부여함.   | · 일광의 양과 방향을 치밀하게 조절,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로 활용.<br>·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 패턴이 흥미롭게 보여짐.   |
|      | 색상   | · 백색의 벽과 천장은 형태적으로 풍요로운 실내를 솔직히 드러내며 미술품에 훌륭한 배경이 되어줌.  | · 하얗게 칠한 벽은 콤팩트한 실내를 단정하게 정리해줌.   |
| 형태요소 | · 1/2원, 1/4원을 비롯한 기하학적 곡면벽, 자유곡면벽<br>· 벽난로와 굴뚝<br>· 노출 원기둥과 보<br>· 독립적인 계단<br>· 돌출 발코니<br>· 다양한 형식의 차양구조 | · 부분원을 비롯한 기하학적 곡선벽<br>· 벽난로와 굴뚝<br>· 노출 원기둥<br>· 원통 계단실<br>· 부분의 상세한 표현<br>· 기하학적 형태의 커다란 개구부<br>·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창<br>· 다양한 형태의 천장구조    |   |

#### 5. 결론

2장과 3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리차드 마이어와 마리오 보타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승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비롯하여 이들이 받은 교육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앞서간 거장들의 가르침과 교육적 배경에 기초하여 두 작가의 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마이어와 보타의 주택에서 공통적 특성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꼬르뷔제의 원칙과 언어를 이어받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초기주택에서 보여 지는 2층 높이의 공용공간과 단층 높이의 개인공간의 구분, 기능 또는 조형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평면형태, 독립된 형태요소로서 벽난로와 굴뚝, 계단, 원형기둥의 적용, 부분원의 기하학적 곡선을 비롯한 다양한 곡면벽의 활용은 이들의 주택이 공통적으로 꼬르뷔제의 주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꼬르뷔제의 원칙과 언어를 계승한다는 사실이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은 그 원칙과 언어를 사용할 때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주택에 적합한 원칙과 언어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이나 간결한 기하학적 입체를 기초볼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각각 마이어와 보타의 주택에 적용되며 변화, 발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어는 두 공간의 대비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형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타는 간결한 기초볼륨에 절삭의 기교를 가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주택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둘째, 두 작가의 주택에 나타나는 차이는 보타가 받은 칸파스카르파로부터의 교육과 마이어에 끼친 미이스와 미국의 실용적 건축의 영향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과거 건축의 존재감과 장인의 기교, 장식의 풍요로움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칸파스카르파로부터 교육받은 보타가 존재감과 상징성, 표현성을 중시하는 주택을 발전시킨 것이나 미이스와 미국의 실용적 건축으로부터 교훈을 받은 마이어가 대지와 주변환경, 공사방법 등 실재를 존중하는 주택을 발전시킨 사실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가르침을 준 거장들의 영향에 따라 보타는 두텁고 육중하며 표현적 관점에서 유리한 벽돌을 선택한 반면 마이어는 얇고 가벼우며 투명한 재료, 스티드 벽과 금속재 패널, 유리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보타의 주택이 벽돌의 표현성, 장식성을 충분히 살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주택을 발전시킨 것에 반해 마이어는 차갑고 매끄러우며 이성적인 현대적 감각의 주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셋째, 각각 저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마이어와 보타의 주택에는 이들에게 교훈을 준 거장들의 원칙과 언어가 조화롭게 융화되어 나타난다. 두 작가가 각자 독특한 주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창의적 안목을 가지고 스승들의 사상과 원칙, 언어를 지혜롭게 종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적으로 설명한다면, 보타의 주택은, 보타의 조형적 판단 아래 꼬르뷔제로부터의 기초적 볼륨과 칸으로부터의 절삭의 기법, 칸파스카르파로부터의 기하학적 개구부, 조적기교, 상세표현 등이 조화롭게 종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내 관점에서, 서비스 공간과 주 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로지아를 통해 내부와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칸의 원칙이 융해되어 있음은 앞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이러한 보타의 주택과 비교하여, 마이어의 주택은, 크게 꼬르뷔제의 주택과 미이스 주택의 결합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마이어의 주택에는, 다양한 곡선과 벽난로, 굴뚝, 계단 등의 활용으로 현대적으로 풍요로워진 꼬르뷔제 주택의 특성과 얇고 가벼우며 투명한 미이스 주택의 특성이 겹쳐져 보여 지기 때문이다.

넷째, 두 사람의 주택에서 차이는 이들의 주택에 적용되는 새로운 표현들을 통해서도 보여 진다. 다양한 모양의 기하학적 창과 결합된 콘크리트 상세의 표현, 수직 슬릿과 역삼각 창이 결합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타 주택에서의 새로운 표현이 주로 스승들의 언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임에 비교해, 마이어 주택에서의 새로운 표현은 영향을 준 거장, 특히 미이스의 원칙과 언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재료와 언어를 받아들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언어를 개척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타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 반면 마이어의 경우 조금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 태도를 보인 것을 설명해 준다.

현대적이면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마이어의 주택과 감성

적이면서도 기념비와 같은 고유한 이미지를 갖는 보타의 주택은 공간의 제반 문제들을 명쾌히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 생각한다. 이제까지, 두 작가가 앞서간 선구자들의 사상과 원칙과 언어를 어떻게 종합하고 극복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자신들의 주택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종결지으며, 본 연구가 새로운 건축과 실내를 모색하는 실무 디자이너와 학생들에 또 하나의 방향과 방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기초로 두 작가 주택의 특성을 결합한, 내적으로 변화와 형태가 풍부하며 외적으로 상징과 표현이 가득 찬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 태동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1. Cappellato, Gabriele ed., Mario Botta/ Light and Gravity, Munich: Prestel, 2003
2. Green, Lisa J. ed., Richard Meier/ Architect 2,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91
3. Green, Lisa J. ed., Richard Meier/ Architect 3,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99
4. Green, Lisa J. ed., Richard Meier/ Buildings and Projects 1979-1989, London: Academy Editions, 1990
5. Jodidio, Philip, Richard Meier, Köln: Benedikt Taschen Verlag 1995
6. Ockman, Joan ed., Richard Meier/ Architect,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84
7. Pizzi, Emilio ed., Mario Botta/ The Complete Works, Vol.1, Zurich: Artemis, 1993
8. Pizzi, Emilio ed., Mario Botta/ The Complete Works, Vol.2, Basel: Birkhauser, 1994
9. Rykwert, Joseph, Louis Kahn, New York: Harry N. Abrahams, 2001
10. Sacchi, Luisa ed., Mario Botta/ Architectural Poetics, New York : Universe, 2000
11. White, Elizabeth ed., Richard Meier/ Architect 4,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4
12. Black, Peter, 현대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 윤정섭 역, 서울: 건우사, 1993
13. Blaser, Werner, 미스 반 데어 로에, 송춘식 역, 서울: 대우출판사, 1983
14. 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ls., 르꼬르부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집문사, 1991
15.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홍기 역, 서울: 기문당, 1992
16. 서경원 ed., Pro Architect 20/ Mario Botta, 서울: 건축 세계사, 2000
17. Architectural Monographs, Mies van der Rohe, 이민 역, 서울: 공간도시, 1989
18. A+U, Carlo Scarpa, 장성수 역, 서울: 태림문화사, 1988
19. A+U, Louis I. Kahn/ 착상과 의미, 이강훈 역, 서울: 도서출판 갑을, 1985
20. A+U, Mario Botta, 편집부 편역, 서울: 집문사, 1997
21.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yo: A.D.A. Edita, 1984
22. GA Document Extra, Richard Meier, Tokyo: A.D.A. Edita, 1997
23. Pro Architect 20, Mario Botta, 서울: 건축세계사, 2000
24. 김용립, 리차드 마이어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 제13호 1997
25. 김용립, 마리오 보타 주택특성에 관한 고찰, 실내디자인 제17호, 1998
26. 정금화, Le Corbusier의 주거 디자인요소에 관한 연구/ Villa Savoye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1988

<접수 : 2006. 8. 31>